

한국인의 신체관과 문신문화

김 가 현 · 하 지 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요 약

한국은 역사적으로 자체적인 문신문화가 없는 국가이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신이 패션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타투리스트와 같은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은 불법이며 문신을 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시선 또한 부정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의 배경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신체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았다. 한국인의 신체관과 문신문화를 사적으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문신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 시대 동안 모두 타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문화로 자국만의 깊이 있는 문신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문신을 하는 사회문화적 의미가 충분하지 않으며, 몸을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는 전통적 신체관을 지닌 한국인에게 문신은 그저 신체를 훼손하는 부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둘째, 한국에서의 문신은 가리고 싶거나 가려야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한국은 문신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로, 문신의 심미성에 대한 이해가 역사적으로 없었다. 이에 기존의 ‘낙인’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벗어나 하나의 패션으로 받아들여지는 중간과정이 부재하다. 셋째, 한국에서 문신의 유행과 잔존해있는 부정적인 인식의 대립은 내재된 신체관의 약화로 결론지을 수 있다. 과거에는 국가적 통제가 필요 없을 만큼 개인들의 유교적 신체관이 확고했기에 자의로 신체를 변형하는 현상이 적었지만 현재는 규제가 등장할 만큼 문신 인구가 늘고 있다. 이는 유교적 신체관이 강하게 남아있는 기성세대와 비교적 그 강도가 약한 신세대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지닌 한국 사회에서 문신을 패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단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는 그 과도기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신체관, 신체변형, 문신문화, 유교적 가치관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BK21플러스 의류패션 전문 창조 인재 양성 사업팀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교신저자: 하지수, jisooaha@snu.ac.kr

접수일: 2017년 9월 20일, 수정논문접수일: 2017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3일

I. 서론

인류역사에서 인간은 다양한 동기로 끊임없이 신체를 변형해왔다. 치유, 숭배, 신격화, 복종, 처벌 등 다양한 의미를 문신문화를 통해 표출해왔다. 오랜 문신문화를 지닌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 문신은 종교적 성격과 통과 의례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현대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신체 변형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문신, 피어싱, 컷팅, 임플란트 등의 영구적으로 몸에 표식이 남는 신체변형이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패션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Kim, 2012).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체변형 행위 중 가장 흔한 것은 문신인데, 문화에 따라서 그 의미나 수용에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도 신체의 영구적 변형, 특히 문신이 과거에 비해 흔해졌지만, 여전히 사회 내에서의 시선은 부정적인 경향이다. 신체변형행위에 있어 변형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여 정신과 및 외과 치료를 권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상을 편집하기도 한다. 또한, 문신은 경찰 등 공무원 임용 시 신체검사 관련 불이익 규정이 있는 등 신체변형에 대해 사회적인 제약이 외국에 비해 큰 편이다. 이는 사적으로 내재된 전통관과 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신에 대한 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문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고찰하고, 한국에서의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거를 전통적 신체관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통적 신체관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기성 세대와 비교적 전통적 사고가 약해져 문신을 자기 표현의 한 형태로 활용하는 현 세대간의 문신에 대한 인식 차이 및 갈등을 보다 본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신체관을 고찰함으로써 신체변형의 하나인 문신에 대한 한

국의 사회적 인식 형성의 배경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으며, 현대 신체변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혀 국내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문신 인구에 대한 향후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범위는 세계 문신의 경우, 대표적인 문신문화인 폴리네시아(Polynesia), 시베리아(Siberia) 지역 등에서부터 유럽권 및 북미지역까지 시기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한국의 경우, 사료를 찾아볼 수 있는 한국의 고대부터 현대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문신의 의미가 크게 변화한 시기를 기준으로 고대, 중세 이후부터 근대까지, 그리고 현대의 세 시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사의 시기를 구분할 때, 10세기 고려건국 이전까지를 고대로, 고려시대를 중세, 14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의 조선시대를 근세, 그 이후를 근·현대로 분류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세계의 문신을 사적으로 고찰하고 문신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견해를 고찰한다.

연구문제 2. 한국의 문신을 사적으로 고찰하여 문신에 내재된 의미와 특성을 밝힌다.

연구문제 3. 현대 한국인의 문신에 대해 전통적 신체관과 관련해 고찰하고, 한국 문신문화의 특수성을 밝힌다.

II. 세계의 문신에 대한 사적 고찰

1. 문신의 의미

인류는 전세계 수많은 지역에서 저마다의 서로 다른 방법과 의미를 지닌 문신을 행해왔다. 피부 색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피부 색이 짙은 흑인들이 무늬를 따라 지속적으로 상처

를 내서 부풀어오르게 흉터를 남겼던 방법과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 색소로 문양을 새기는 방법이 있다(Kim, 2007). 후자는 현재까지도 문신 시술소 등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냉동된 상태로 발견된 5000년 전의 인간의 몸에도 문신이 새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전세계를 아울러 인간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이유로 몸에 흔적을 남겼음을 알 수 있다. 종교적 헌신을 상징하거나 집단의 소속을 의미하는 문신부터 이성을 유혹하는 장식적 문신까지 다양하다. 이처럼 세계의 문신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그 의미와 목적에 따라 문신의 의미를 의식, 표식, 장식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의식

고대부터 이어져온 문신은 주술성이 표현된 문신이 많으며, 집단만의 의례적 의미가 담긴 경우가 많다. 이집트의 남성 미라와 함께 미라 상태로 매장된 여성 미라는 몸에 문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성 몸에 새겨진 문신이 남성의 성욕을 일깨워 부활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시 병사들은 사기를 북돋기 위해 전쟁의 여신을 상징하는 상형문자를 새겨 결속력을 다지기도 하였다(Rubin, 1988).

북극 지방의 시베리아 종족들은 치료용으로 작은 원이나 직선을 통증 부위에 새겨왔고, 북아메리카의 오지브와(Ojibwa)족 역시 두통 및 치통을 막기 위해 관자놀이, 뺨, 이마 등에 문신을 하였다(Sinclair, 1909). 한편, 1991년 알프스 산맥에서 등반객에 의해 발견된 5000년 전의 냉동인간의 몸에는 관절마다 일정한 크기의 선들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학자들이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그 부위는 손상이 있던 부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Spindler, 1994), (Figure 1). 즉, 치료목적의 주술적인 문신은 매우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 아이스맨의 문신.
From EURAC Research. (n.d.).
<http://iceman.eurac.edu>



Figure 2. 보르네오인의 손 문신.
From Krutak. (n.d.).
<http://www.vanishingtattoo.com>

특히, 원시 부족들은 죽음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으며, 죽은 뒤의 여정에서 순탄한 길을 가게 하는 의식적 표지로도 문신을 사용하였다. 보르네오(Borneo)인들은 손에 문신을 하는 습속이 있는데, 이송에서는 지위를 상징하지만 사후에는 사자의 강을 건널 때 문신된 손을 보여주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준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주술적 의미였다(Figure 2). 북아메리카 원주민들 역시 전사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이 떠도는데 늙은 부인이 나타나 문신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을 때 보여주지 못하면 귀신으로 남게 된다고 믿었기에 전투를 하는 병사들은 손에 문신을 하였다.

북극지방의 알래스카(Alaska) 지역에서는 장례식에서 장례문신을 하는 습속이 있었는데,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등과 같은 접합부에 점들을 새기는 것이다. 이러한 장례문신이 악령의 공격으로부터 관을 메는 사람을 지켜준다고 믿었으며, 관절을 선택한 이유는 악령이 침투하는 공간

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냥을 한 민족으로, 첫 살생을 한 후에도 살생의식으로 접합부에 문신을 새겨 귀신이 드는 것을 방지했다. 즉, 문신은 몸에 새기는 부적의 역할을 한 것이다.

같은 흐름으로, 수렵 및 채집 생존환경에 던져진 종족들에게 문신은 위협 요소로부터의 예방책 역할을 하였다. 주로 해양민족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데,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바다에서 익사하는 경우가 잦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 입술 옆에 범고래의 입가를 연상시키는 문신을 새겼다. 베트남에서도 백성들이 강에서 물짐승들에게 해를 입자 수중괴물의 형상을 몸에 새겨 스스로를 주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다(Cho, 2002).

2) 표식

문명이 일찍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문신을 원시의 것이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인들로부터 문신 기술을 배워 노예 및 범죄자에게 도주 방지용 문신을 새겼고, 로마인 또한 군인들의 탈영을 막기 위해 문신을 표식으로 사용하였으며(Bang, 2008), 이때 문신을 수치스럽게 여겼기에 낙인의 효과가 확실했다. 고대 중국은 문신을 야만스럽게 여겨 처벌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였고, 이후에 중국의 유교 문화를 받아들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자연스럽게 문신은 형벌의 표식으로 자리잡게 된다(Cho, 2002), (Figure 3).

부정적인 표식으로서의 문신은 근대 유럽사회

에서도 사용되었다. 문신이 유행하던 19세기 당시 프랑스에서 중상류층에서는 문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문신은 무법자들만 행하는 것이라는 편견이 퍼졌다. 이러한 흑백논리의 편견은 범죄자를 가려낼 수 있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였기에 신원 확인용으로 활용했다(Gilbert, 2000/2004). 또한 독일의 강도들은 같은 조직원임을 확인하는 표식으로 은밀한 문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를 갖은 표식 문신은 부족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술적인 문신으로 유명한 폴리네시아 지역의 마르케사스(Marquesas) 인들은 문신이 정교할수록 신분이 높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수련된 사제만이 높은 계급의 문신 기술을 맡았기 때문이다. 사모아(Samoa) 남성들은 성년이 되면 의식적으로 문신 기술을 행했으며, 과정이 고통스럽기에 고통을 피하기 위해 문신을 하지 않는 남자는 멸시를 당했다. 즉, 문신은 고통을 감내했다는 남성성의 상징이었다. 게다가 폴리네시아의 문신 의식은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30~40년에 걸쳐 수십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가며 장기간에 이루어졌는데, 고통의 과정을 거쳤다는 의식적 효과에 더불어 문신의 정교함을 배가시키는 과정이 되었다(Bang, 2008).

북극의 에스키모(Eskimo) 여성들은 턱에 가는 줄을 새겼는데 한 벌의 완전한 줄 문신은 고통을 감내했음을 의미하므로 강인하고 좋은 아내의 표식으로 작용했다(Figure 4). 또 그들은 불임을 방지



Figure 3. 조선의 형벌문신.
From Namgung. (2015). p. 114.



Figure 4. 에스키모 여성의 턱 문신.
From INUIT TATTOO GALLERY. (n.d.).
<http://www.indigenoustattooing.com>



Figure 5. 마오리족의 모코 문신.
From Zealand Tattoo. (n.d.).
<http://www.zealandtattoo.co.nz>

하기 위해 불에 세 줄의 등거리 선을 돌려 새기기도 하였다. 에스키모는 남녀 모두 의복이 두터워 성별을 구별하기가 어렵기에 얼굴에 새겨진 문신들로 여성을 식별하기도 하였다(Gilbert, 2000/2004).

뉴질랜드 마오리(Maori)족의 모코(Moko)는 얼굴에 주로 장식한 복잡한 나선형의 전통문양으로 그 하나 하나에 고유성이 있어 일종의 서명으로 작용하였다(Figure 5). 모코는 전쟁에서 돌아온 시신을 구분하는 신원확인의 증표가 되었고, 정교함의 정도로 지위까지 상징하였다(Bell, 1999). 아메리카 대륙의 하이다(Haida)족 인디언들은 남녀 모두 피부를 최대한 노출하게 되는데 문신된 문양에 따라 계급, 가족, 지위 등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혈통을 나타내주는 표식을 통해 서로가 다른 구성원임을 표시하는 습속은 원시 부족사회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난다.

일본에서 승려, 매춘부와 같은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사랑의 맹세로 노출되지 않는 부위에 글자를 새기는 경우도 있었다(Richie & Buruma, 1989).

3) 장식

몸에 장식을 하는 것을 매우 본능적인 인간의 욕망으로 볼 때, 단순히 장식을 목적으로 문신을 하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많은 지역에서 치장 목적의 문신이 흔히 나타난다. 이집트의 아무네트(Amunet)라는 여성 미라의 팔다리에 여러

평행선들과 복부에 타원형 문신이 발견된 바 있으며(Figure 6), 학자들은 관능적 의미가 있는 문양들이라고 해석한다(Bianchi, 1988).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인들의 기하학적 패턴의 문양들 역시 그 예술성을 인정받는데, 몇몇 민속학자들은 특히 남태평양의 문신은 거창한 사회문화적 목적과 관계없이 오로지 장식의 수단이라고 이해할 정도로 세련된 예술로서의 문신이 나타난다. 사모아(Samoa)족 및 통가(Tonga)족들은 몸 전체를 두르는 정교한 기술의 문신을 하였으며(Figure 7), 카얀(Kayan)족의 경우 남성들의 문신은 장식용에 치중해 있었으며 문양에 큰 의미가 없었다고 한다. 마오리족 역시 노예를 제외한 모든 남성들은 정교한 나선형의 무늬들을 문신하였고, 이는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함이었다(Gilbert, 2000/2004).

원시 부족사회 외에도 문신이 예술로 자리잡은 국가들이 있고, 대중문화를 공유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문신을 예술로 받아들이고 있다. 18세기 일본에서는 유흥 문화가 발달하며 대중 예술이 발달하였는데, 이를 기록하기 위해 우키요에(Ukiyo-e)라는 목판화가 크게 발달하고, 이는 일본 문신가들에 의해 복제되며 대표적인 장식적 문신으로 자리잡게 된다. 일본의 우키요에 문신은 각각의 문양이 결합되는 형태인 폴리네시아의 장식 문신과 달리 하나의 그림이 온몸을 덮는 형태로 그 독특성, 예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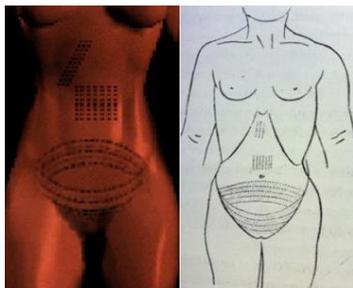


Figure 6. 아무네트의 복부 문신.
From Balamke. (2014).
<http://zeroequalstw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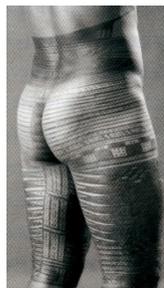


Figure 7. 사모아인의 장식 문신.
From Namgung. (2015). p. 127.



Figure 8. 미국 서커스 단원의 문신.
From Michelle. (2014).
<https://olivevintage.net>

장식적 문신의 유행은 19세기 영국에서도 활발하였다. 영국 해군 및 선원들은 항해를 마치고 귀향할 때마다 기념품으로 이국적인 문신을 추가하였는데, 상류층 귀족에게도 받아들여지면서 예술의 하나로 인정받게 된다(Kosut, 2006b).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서커스의 인기와 함께 문신의 수요도 늘어 대중적으로 퍼져나갔으며<Figure 8>, 감각적인 문신시술자들이 예술가와 유사한 대우를 받음과 동시에 대중 예술의 형태로 자리잡았다.

2. 문신에 대한 시각

다양한 목적을 가진 문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여러 갈래로 나뉜다. 다수의 인류학자 및 사회학자들은 문신을 부족의 의식 행위 및 표식으로 보는 견해로 장식적 문신도 다양한 사회적 의미가 결합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폴리네시아 문화권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종족에서는 온전히 장식적 목적을 지닌 예술적인 문신을 해왔음을 주장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Gilbert, 2000/2004).

현대사회에서는 종래의 문신의 의미들이 매우 넓게 확대되었다. 20세기 서양에서는 문신을 원시적 혹은 야만적인 비 서양국가의 문화 유산이라도 간주하거나, 하위문화 및 범죄자 문화로 보는 시각 등으로 매우 제한적인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봐왔다. 학계에서도 문신을 주로 범죄와 관련 짓거나, 병리학적 시각으로 다루었다. Lombroso(1911)는 문신한 범죄자들은 문명화된 인간들에 비해 신체적 고통을 덜 느낀다고 간주하여 문신한 ‘야만인’으로 묘사했다. 동시대 프랑스 범죄학자 알렉상드르 라카사뉴(Alexandre Lacassagne) 또한 문신의 유무로 범죄성을 판단하기도 하였다(Caplan, 2000). Parry(1933) 역시 미국 사람들이 성적 도착 및 성 기능 장애 때문에 문신을 한다고 주장하며 문신을 이상행동으로 보았다. 이처럼 초기의 정신분석학 기반의 연구들은 문신을 정신질환부터 범죄행위까지

일탈적인 행위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1990년대까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정신분석학에 기반한 연구들은 그 방법과 대상이 매우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었는데, 대부분 병원 및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남성 정신병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Caplan et al., 1996; Gittleson et al., 1969; Hamburger, 1966; Loimer & Werner, 1992; Newman, 1982; Post, 1968). 위 연구의 대상들은 이미 정신병자 혹은 범죄자로 분류된 한정적인 표본이기에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문신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세기 말 학자들은 문신이 주류문화로 확대된 사회적 배경과 함께 개인적 동기에 연구를 집중하기 시작했다. Steward(1990)는 문신의 개인적 동기는 자기 도취증(narcissism), 가학피학성 성애(sadomasochism)와 같은 정신적 요인과 더불어, 조직에의 소속 증명, 실존주의(existentialism), 기념, 장식, 애국심 고취, 민족적 정체성 표현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회적 지위, 성별, 사회적 성, 인종, 직업, 나이, 지역 등 모든 요소들이 개인의 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Favazza(1996)는 고의적인 신체 훼손은 개인의 극심한 불안, 이인장애(depersionalization disorder), 두려움, 포기 등과 같은 심리적 억압 상태에 대응하려는 흔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문신의 동기를 개인의 정신 상태에서 찾은 동시에, 개인들이 문신을 함으로써 그들의 신념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영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고 하며 개인적 동기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였다. Govenar(1988)는 라틴계 하위문화에서는 손에 한 문신은 주로 집단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상징한다고 밝혔으며, Miller(1996)는 문신의 문양은 개인적인 의미부여도 많지만 주로 문화적 관습이나 미신에 기반이 있다고도 하였다.

문신과 같은 신체변형 행위에 대한 논의는 국내보다 국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문신을 일

탈행위로 보는 시각이라는 시작점은 유사하지만, 서양에서는 80-90년대 이후부터 문신을 예술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는 논의를 시작했다. 따라서 21세기의 학계에서는 문신을 예술로 보는 시각이 다소 지배적이다. Kosut(2006a)은 현대 사회에서 문신이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문신은 일종의 패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각각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예술이라 하였다. 기성복과 달리 같은 패턴, 같은 디자인을 시술하더라도 타투이스트의 수작업에 따라, 또 시술을 받는 사람의 신체 특성에 따라 독특한 디자인을 갖는다. Lautman(1994)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몸을 캔버스화 하여 개인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문신을 정의 내리며, 현대의 거리를 움직이는 갤러리라고 말한 바 있다.

정리하자면, 문신에 대한 서양의 시각은 일탈행위에서 자기표현, 그리고 예술까지 의미가 변화 혹은 확대되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문신을 일탈행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개인의 동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예술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속도가 느린 편이다. 신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진, 역사적으로 비문신문화 국가인 국내의 문신문화에 대해 다음에서 더 자세히 고찰하였다.

III. 한국의 신체관과 문신

1. 한국의 신체관 형성

신체관은 신체가 인간에게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견해를 의미한다(Lee, 2000). 이 견해는 문화권마다 다른데, 서양에서는 신체를 물체의 일종이라 생각하였고, 동양에서는 신체를 정신과 물체의 중간으로, 이 둘을 하나로 결합시킨 것으로 보았다. 한국의 신체관을 보기에 앞서 동서양의 신체관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서구 사회의 신체관은 고대 사상으로부터 시작된다.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500년경의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Heracleitos)로부터 시작해 플라톤(Platon)이 이원론적 신체관을 형성하였다(Lee, 2003). 플라톤은 특히 정신적인 것이 항상 물질적인 것에 우선한다고 하며 신체는 정신보다 열등한 것으로 정신에 종속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원론적 사상을 중세 기독교에서 받아들여 종교가 문화 전반을 지배하던 중세 내내 신체경시사상이 만연하였다.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는 고대부터 이어져오는 서양의 이원론적 신체관을 정립하였는데,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며 사유로서의 인간을 정의하였다. 정신과 몸, 자연과 인간, 사유와 행동, 자아와 타자 등이 분리되는 이원론을 제기하며, 인간의 신체 위에 정신을 두어 정신이 몸을 지배할 수 있다는 고대로부터의 사상적 계보를 이었다. 이원론은 오랜 기간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어왔지만, 근·현대로 들어서면서,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 스트라우스(Strauss), 메를로-퐁티(Merleau-Ponty) 등 사회학자들은 ‘관계’의 기반인 신체를 강조하며 심신이원론을 전면 부정하였다(Jung, 1999). 정신분석학계에서도 신경증과 같은 히스테리가 생리적 원인이 아니라 무의식으로부터 온다는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주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기존의 사고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동양의 신체관은 서양과 달리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유교, 불교, 도교사상 등 고대 중국사상을 기반으로 하며(Shim, 2017), 이에 반하는 심신이원론, 영육일치 등 영혼과 몸이 분리될 수 있다는 개념은 모두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다. 기계론적 신체관에 근간을 두는 서양의학과 유기론적 신체관의 동양의학은 크게 차이가 있으며 여전히 동서양은 사회구조적으로 사고의 기반을 달리하고 있다. 몸을 밖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객체로 보는 서

양과 달리 동양에서는 몸을 안에서 보아 주체적인 수양을 중시한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근간이 다른 이유는 몸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인데, 동양은 몸이 보이지 않는 기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덕이 몸을 윤택하게 한다’며 몸, 몸에 흐르는 기, 마음 세 가지를 인간이라고 보는 맹자(孟子)의 천형관(踐形觀), 몸을 사회규범인 예(禮)를 담은 사회화된 몸으로 보는 순자(荀子)의 예의관(禮義觀), 우주에 흐르는 기, 즉 음양과 오행이 우리 몸에서 운행한다는 관점의 기화관(氣化觀) 등으로 나타난다(Lee, 2005). 이처럼 동양에서는 철학과 의학을 막론하고 몸에 흐르는 기에 만물의 존재의 근거를 두었기에 심신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주체와 신체를 하나로 보았다.

한국 중세 유교사상인 효, 가족, 가부장제도, 조상숭배 등의 문화는 신체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유교적인 가족관은 한국에서의 신체관을 언급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개인과 가족을 분리하지 않는 관점으로, 가족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Lee, 2009). 「四書」 중 「大學」에서도 나타나듯이 개인은 가족, 집단으로 확대되어 몸을 닦고 집을 돌보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한다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가르침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개인과 가족, 국가, 세계를 결국 하나로 통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큰 일을 하기에 앞서 몸을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한국에서 유교적 가족관을 바탕으로 가장 견고하게 자리잡은 가치관 및 신체관으로 「孝經」의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사야(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를 들 수 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하는 것이 미덕이며, 이를 어기는 것은 불효로 간주해왔다. 머리카락도 신체의 일부로 여겨, 1895년 을미개혁 시 개화 내각에 의해 단행된 단발령에 강하게 반발한 역사가 있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6).

한국인은 사후에도 매장을 선호하고, 장기기증에 부정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Lee, 2005). 이처럼 유교 사회에서 몸에 대한 처신 및 운용은 개인의 의지보다 부모 더 나아가 조상과의 연계 아래 엄격한 규칙을 두는 것을 당연시 여겨왔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신체와 정신을 동일시하여 훼손하지 않을 것을 중시해왔으며, 현재에도 유교적 신체관은 상당히 강하게 한국인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2. 한국의 문신에 대한 사적 고찰

한국은 비문신문화 국가로 기록이 사적으로 풍부하지 않지만 중국의 사료들을 토대로 고대부터 문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문헌에는 형벌문신 등의 기록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대까지의 문신 역사를 이해하는데 무리는 없다. 우리의 문신은 모두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여진 문화로 자체적인 문신문화가 부재하였으며 시대마다 사회문화적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이를 고대, 중세 이후, 현대의 세 시기로 나누어 시대별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대의 문신

고대 한국의 문신에 대한 증거는 국내 문헌상이나 출토 유물로 남아있지 않지만, 일본 및 중국의 고문서 등 외부 사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기원전 5000년경의 문신 표시가 된 입상의 출토에서 볼 수 있듯이 일찍이 문신문화가 발달한 국가이다. 「三國志」, 「後漢書」, 「晉書」, 「漢書」, 「隋書」 등 중국의 고서에 일본 오키나와(Okinawa) 및 본토, 한반도의 남쪽 지역, 타이완(Taiwan), 필리핀(Philippine), 베트남(Vietnam), 중국 남부 해안지역 등 해양 민족이 물집증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주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한 기록이 있으며 (Cho, 2002), 3세기경부터 일본 남성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얼굴에 문신을 하고, 몸에는 문양들이 장식되어 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Gilbert, 2000/2004). 여러 학자들은 문신의 유래를 뱀과 악어 등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퍼진 풍습이라고 보는데, 일본은 지형상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고대부터 물짐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주술기능을 위해 문신을 일찍이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삼국지에 한국에서는 남성, 여성 모두 왜(倭)와 같이 바늘로 몸뚱이에 먹물을 넣어 글씨나 그림을 그린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즉, 고대 한국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한 일본의 풍습을 어부들이 따라 하면서 문신을 시작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Cho, 2002). 하지만 한국의 문신은 일본의 외적 조형성만을 받아들인 일시적 문신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주술성보다는 장식성에 더 초점을 맞춘 문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한(馬韓) 및 변진(弁辰)의 문신을 한국 최초 정형화된 치장이라고 보는 학자의 의견도 있다(Jeon, 1987).

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중국 당(唐)의 유가(儒家) 사상이 수용되면서 장식적 문신풍습이 사라지고 문신은 단지 형벌의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일본 역시 유교사상이 유입되면서 신체를 훼손하는 문신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 사서에서 일본의 문신습속의 야만성에 대한 비난이 잦았는데, 이를 의식한 천황들의 냉대로 일본에서 문신은 형벌의 일종으로 자리잡게 된다. 유교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일대에서 고대의 문신풍습은 사실 기록상에서 단절되었다.

2) 중세 이후의 문신

「高麗史」 및 「經國大典」에 중국의 형법 체계를 수용한 형벌문신으로 다시 문신이 나타난다. 주(周)나라 기록에 의하면 문신이 사망 의식으로 사

용되기도 하였는데, 망자의 영혼을 신체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의미가 있었다(Moon, 2000).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한 형벌문신은 죄목을 글자 형태로 얼굴에 영구적으로 새기는 가혹한 형벌이었으며, 주술적이고 장식적인 고대 그림문신과 달리 글자로 의미를 전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고려시대에 문신은 형벌체계에서 사형 다음의 가혹한 형벌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무거운 때만 행해졌을 것을 알 수 있으나, 조선시대에 강도 및 도적 죄를 저질렀을 경우 죄목에 따른 글자를 새기는 형벌을 가하게 되어 고려시대에 비해 매우 빈번하게 행해졌다. 강도는 법조문대로 처결한 후 ‘강도’라는 두 글자를 몸에 먹물로 새겨 넣으며 두 번 범하면 교형에 처한다고 「經國大典」에 명시하고 있어, 형벌문신은 사형을 집행하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형벌이었음을 알 수 있다(Lee, 2007). 유교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몸에 영구적 낙인을 남기는 문신형벌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행위로, 개인과 가족, 집단, 세계와의 연결인 신체를 훼손하는 패륜적인 행위였다. 즉 사형이 세계로부터의 영원한 단절이라면 문신형벌은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를 의미했다.

조선시대에는 연인이 서로의 팔에 이름을 새기는 애정문신인 연비(聯臂)도 존재하였는데, 조선 후기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동방여역의 탕자들은 서로 결의하는데 바늘로 서로의 팔뚝을 찔러 먹을 하고 점색을 이루며 그 색은 푸른빛을 띠고 그 이름을 연비라 한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Lee, 2007, p. 353). 이는 17세기 일본 기생들에게서 유행한 것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한다. 결의를 맹세하는 습속이 개화기 예배당에서 의형제 결연에도 이어졌다는 기록도 있어, 연인간의 맹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맹세의 증거로 사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표식문신은 의복으로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20세기 말까지 비밀리에 유행하였고 현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

3) 현대의 문신

현대 한국 사회에는 표식으로서의 문신과 장식으로서의 문신이 혼재한다. 하지만 표식으로서의 문신이 더 이상 과거처럼 가려야 하는 은밀한 것은 아니며, 심미성이 더해져 장식적 역할도 병행하게 되었다. 현대에도 여전히 연비와 유사한 결의문신 및 애정문신이 존재하고 있는데, 1980년대 문신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여성의 88%가 문신의 동기로 형제결의라고 응답한 결과가 있으며(Pac, 1990), 최근까지도 우정 및 사랑에 대한 증거로 같은 글귀나 짝을 맞추는 그림을 새기는 사례가 많으며, <Figure 9>처럼 같은 신체부위에 같은 문구를 새긴 집단 및 연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 쉽게 노출되는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의 문신이 그 유행을 선도하기도 하였는데, 2000년대 초반 축구선수들이 연인의 이름을 상체에 새겨 화제가 된 사례도 있다. <Figure 10>은 축구선수 안정환이 팔에 그의 아내의 이름을 문신한 것이다.

현대의 표식문신은 사회적 소속감 및 유대감을 증대시켜주기도 하며, 개인 가치관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및 현재의 행적을 글자 및 문양으로 표시하거나 애국적인 혹은 종교적인 메시지를

통해 소속감을 고취시키곤 한다. <Figure 11>은 힙합 가수의 문신으로, 애국심에 존경하는 인물인 세종대왕과 국화인 무궁화를 문신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Figure 12>와 같이 좌우명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단어 및 구절을 새겨 영구적 동기부여를 기대하기도 한다.

대중문화 및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장식적 역할로서의 문신이 활발하다. 이 또한 일본 우키요에의 영향으로 신체 부위 전체를 한 폭의 그림으로 덮는 것이 야쿠자 사이에서 유행하였는데(Gilbert, 2000/2004), 이것은 국내 조직폭력배 및 범죄자를 시작으로 퍼져나갔다(Figure 13). 이에 더해 최근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곧 패션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패션문신은 심미성을 지닌 하나의 예술로 인식되기도 하며 한때에는 힙합문화와 같은 하위문화에서만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곧 하위문화와 관계없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성표현을 위한 장식적 목적의 문신으로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각기 개성에 따라 손, 발과 같은 극소 부위부터 팔, 다리, 가슴 등의 넓은 부위까지 다양한 부위에 시술되며, <Figure 14>와 같이 매우 작은 크기의 문양부터 <Figure 15>처럼 넓은 신체부위를 감싸는 크기의 그림까지 다양하다. 즉, 주로 옷으로 가릴 수 있는 부위에 표식문신을 하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기존의 옷이나 액세서리가 입혀졌던 같은 부위에 그와 같은 목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Figure 9. 현대의 결의문신.
From Namgung. (2015). p. 244.



Figure 10. 축구선수의 문신.
From Namgung. (2015). p. 262.



Figure 11. 연예인의 세종대왕 문신.
From Jung. (2014). <http://stoo.asiae.co.kr>



Figure 12. 좌우명을 새긴 문신.
From Propaganda Press. (2013). p. 76.



Figure 13. 일본 야쿠자 문신.
From Southwell. (2006/2008). p. 134.



Figure 14. 손목 패션문신.
From Propaganda Press. (2013). p. 197.



Figure 15. 전신 패션문신.
From Propaganda Press. (2013). p. 168.

것이다.

하지만 패션으로서의 문신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이지만 여전히 기성세대에서는 부정적인 질타를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현대 한국의 문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입술 문신, 헤어라인 문신 등 미용 문신이다. 미용문신이 간단한 피부과 시술 정도와 같은 경중으로 인식되며, 화장을 대신할 실용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심미적 목적의 장식적 문신이지만, 기존의 화장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기능적인 문신으로 볼 수도 있다. 미용문신은 기능성 때문에 신체변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인식은 기타 패션문신과는 매우 다르다. 미용문신은 영구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훼손하는 변형행위이지만, 화장을 하는 20대 여성부터 60대 여성들까지 넓은 범위의 연령대에서 비교적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화장을 한 후의 상태와 육안상으로 유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한국의 신체관과 문신에 대한 종합적 논의

1) 한국 문신문화의 특수성

한국인의 문신 역사는 고대의 장식적인 문신에서 중세, 근세의 표식으로서의 문신을 거쳐 현대에는 다양한 목적이 복합된 형태의 문신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의 문신문화의 특수성을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우리의 문신은 전 시대를 통틀어 모두 외부로부터 유입된 문화이다. 고대에는 일본으로부터, 중세에 들어서는 중국 송의 형벌체계를 받아들이며 문신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 형벌문신은 이후 조선시대에 더욱 빈번하게 행해지며 자리를 잡았으며, 같은 시대에 일본으로부터 연인끼리 표식을 하는 연비 문화를 받아들여 결의 문신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결의를 표시하는 문신은 은밀한 부위에 하여 의복으로 은폐할 수 있었기에 꾸준히 현대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야쿠자의 그림문신이 범 죄자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으며, 미디어가 발달되며 유입된 서구 문화의 영향과 함께 문신이 결국 패션 혹은 예술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한국은 비문신사회로, 자체적인 문신문화가 존재하지 않고, 기록상 존재하는 것도 모두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문신은 고대를 제외하고는 지난 천여 년간 가리고 싶거나 가려야 하는 것이었다. 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섬인 사모아에서는 문신을 새기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가장 중요하며, 문신 자체는 그 과정을 거쳤다는 영구적 증거로 작용한다(Sweeney & Hodder, 2007/2009). 이는 꼭 드러내야 하고 드러내고 싶은 표식이었을 것이다. 또, 종교적 목적의 문신을 하는 부족들에서는 자신의 신앙심을 신에게 진열하기 위한 문신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문신문화가 있는

문신사회의 국가들에서는 주로 문신을 상대에게 드러내야만 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반면, 비문신사회인 한국에서는 문신의 종교적 의미 혹은 사회적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부재하였기에 문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있어 왔다. 형벌문신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으로 가리고 싶지만 가릴 수 없는 표식이었고, 연비와 같은 결의문신은 당사자들간의 은밀한 표식으로서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다. 그 후 현대에도 조직폭력배와 같은 사회적 부적응자에 대한 시선 때문에 거리를 다닐 때 팔 토시 및 옷으로 가리고 다니곤 하였다. 현재에는 그런 시선이 그나마 완화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공영 미디어에서는 방송 법상 문신한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 및 CG 처리를 하거나 출연자가 테이프를 붙이고 촬영하기도 하는 등 가려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Enforcement The Broadcast Act, 2016).

2) 한국 문신문화의 제도적 한계

현대 한국 사회에는 제도적으로 문신과 같은 신체변형을 뒷받침해줄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 같은 유교국가지만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문신 기술과 예술이 발달한 국가이며, 그에 따라 독특한 문신문화가 자리잡았다. 하지만 과거에는 문신이 성행하자 1880년경 문신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제한 역사가 있다(Kim, 2013). 현대에도 문신 예술이 극도로 발달한 현실과 모순되게 문신 시술이 불법인 국가이다. 반면 그간 우리나라는 문제가 될 정도의 인구가 문신을 한다던가 하는 등 자발적인 문신문화가 발달하지 않아 일본처럼 법적 규제가 필요치 않아 왔다. 하지만 현대에는 국내의 문신인구 또한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신 시술은 대부분 불법 이기에 정확한 통계자료는 부재하지만, 한 매체에서 발표한 국내 문신 시술 추정인구는 2017년을 기준으로 100만 명 정도이다(‘문신 인구 100만 명’

헌법소원 왜 [‘One million population of tattooed Koreans’, what’s with constitution appeal?], 2017). 스스로 신체변형을 거부해왔던 근대와 달리, 문신 인구가 늘고 있는 현대에는 사회 곳곳에서 문신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사회적 규제를 하고 있는 모습과 닮아있다. 현대의 전세계에서 문신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이며, 국내의 사회적 규제에는 문신 시술자에 대한 규제와 문신 소유자에 대한 규제가 공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문신은 유사의료행위로 분류되기에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다(Enforcement The Medical Service Act, 2015). 문신이 하나의 예술 및 디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의료인이 디자인까지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모순적이기까지 하다. 따라서 문신 시술은 주로 수면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때문에 분위기상 부정적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게 된다. 한 국내 타투이스트는 “무조건적인 합법화가 아니라 기준을 만들면 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할 때 인허가 기준이 있듯...작업을 멋있게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덮어놓고 음성화시키고 불법이라 치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대중과 매체의 관심은 높아지는데 중요한 점은 간과하고 수박 겉핥기 식의 문제만 다룬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패션화될 만큼 발달하고 있는 문신문화를 완강하게 불법화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한 바 있다(Propaganda Press, 2013). 이처럼 문신 시술자에 대해 국내의 미비한 법안은 이미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킨다.

또한, 국내에서는 문신 소유자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 경찰관 등의 공무원 신규 채용 시에도 문신에 대한 규제가 있다. 그 예로 ‘시술동기와 의미, 크기가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경찰청의 신

체기준 규정이 있는데(The Herald Business, 2016), 범죄자를 검거하는 직무에 있는 사람이 한때 범죄자의 상징이었던 문신을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취지이다.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크기 및 노출도에 대한 제한이 있다. 이러한 규제는 해군, 부사관과 같은 특수 군인 징병 시에도 마찬가지이며(신체검사기준 [The criteria of physical examination], n.d.),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다. 또, 목욕탕 출입 시 문신한 자를 꺼리는 문구는 한국인들에게 이미 익숙한 것이며, 이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혐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현행 경범죄처벌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Enforcement The Minor Offenses Act, 2017).

3) 한국인의 신체관과 문신문화

국내 문신문화의 특수성과 제도적 한계의 배경에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에 따라 내재된 개인의 신체관이 있다. 우선 한국이 자체적인 문신습속이 없는 비문신사회였던 원인은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종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고대 국가 및 중세 문명 등의 사회에서는 모두 문신이 사회적으로 금지되어왔으며, 그리스와 로마, 서구 유럽, 동양의 중국이 그러하였다(Lee, 2007). 그 이유는 문신의 주술성 때문인데, 인지, 사회, 문화 등이 발달한 문명사회에서는 원시적으로 보이는 주술에 의존하기 보다는 체계화된 종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과거부터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은 한국은 장식적인 문신문화가 발달할 틈이 없었고, 형벌문신이라는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기원은 고려에서 시작하여 조선에서 정착되었다. 고대부터 문신은 야만적이라는 인식과 중세를 지나며 범죄자라는 인식 등의 문화적 가치관

때문에 자체적인 장식 문신문화가 발달하기 힘들었다.

사회문화적 배경에 더불어 한국 사회가 신체훼손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도 유교적 신체관과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 한국은 선비의 나라라고 자칭할 만큼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이 매우 깊으며, 주자학을 국시로 삼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교적 신체관이 내면화되었다. 특히 16세기에 사람들이 민중 교화를 위해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 휘상 효지사야의 내용을 담고 있는 「孝經」을 포함한 「小學」을 강조하였다. 또 이를 「小學諺解」, 「孝經諺解」와 같은 한글 서적으로 파내면서 귀천에 관계없이 온 백성들을 교화하며 유교적 신체관의 뿌리를 내렸다(Gilbert, 2000/2004). 문신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형벌문신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었는데, 여기에 불효라는 반인륜적인 낙인까지 더해지며 효를 가장 중시하는 민족에게 거부감이 더해진 것이다. 유교적 신체관은 근대에도 여전히 개인들 내면에 뿌리깊게 자리하였다. 을미개혁 시 단발령에 반발하며, 다시 자라는 머리카락조차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신체의 일부로 여기는 가치관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내면화는 현대에서도 사회 전반적으로 잔존해있을 수 밖에 없으며, 사후 매장 문화 선호 및 장기 기증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등으로 나타난다.

신체 훼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큰 것은 주로 기성세대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현재의 기성세대들은 효를 기반으로 한 근대적 교육을 받은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양의 포스트모더니즘 기반의 사고가 흘러 들어온 90년대 청년층은 신체에 대한 주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했는데, 문신이 급격히 수용된 것도 이때이다(Namgung, 2015). 따라서 현대 한국에서는 유교적 신체관이 내재화된 기성세대와 성장시절부터 탈근대적 사고방식을 습득한 신세대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문신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개인들은 스스로 문신을 금기시하였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신념 및 개성에 따라 문신을 소비한다. 타투이스트들은 현재를 한국에서 문신이 문화로 자리잡는 과정의 과도기라고 표현하며,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은 잦아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한다(Propaganda Press, 2013).

IV. 결 론

국내에는 문신에 대한 풍부한 사료는 없지만 국외의 사료들을 참고하여 종합해보았을 때, 한국에서도 문신문화가 존재하였고 현재 새로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에서 문신은 고대의 장식적인 문신, 중세와 근세의 표식으로서의 문신이 있었으며, 현대에는 다양한 목적이 복합된 형태의 문신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의 문신문화의 특수성을 정의하면, 전 시기에 걸쳐 타국의 문신문화를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문신은 자국만의 깊이 있는 문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신을 하는 사회문화적 의미 및 당위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또, 시기별로 문신의 목적 및 의미는 변화하였지만, 문신의 노출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왔기에 문신은 가리고 싶거나 가려야만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형벌문신은 가리고 싶은 것, 애정문신은 가려야 하는 것이었다. 현대에 와서도 문신은 유교적 가치관이 사회 깊히 자리하고 있는 한국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왔으며, 이에 많은 문신 인구들이 사회적 분위기상 옷으로 가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져 부정적인 기능성만이 문신의 목적이 되어왔던 한국에서, 장식 목적의 문신이 자연스럽게 자리잡기에는 심리적 거부감이 있어왔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한국인에게 내재된 전통적 신체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신은 입

고 벗을 수 있는 장식품이 아니라 신체를 변형 혹은 훼손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유교적 문화 아래 효를 중시하고 신체훼손을 꺼리던 민족인 한국인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체에 영구적으로 흔적을 남기는 문신은 장식요소로 받아들이기도 힘든 사고과정인 것이다.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가 아닌 문신문화는 그저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로 취급될 뿐이며, 이는 몸을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신체관에 반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관념이 강하다.

그간 한국은 장식적 문신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로, 표식이라는 문신의 기능성 외에 문신의 심미성에 대한 이해가 역사적으로 없었다. 문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현대 한국인에게 문신은 타국의 문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에 외부로부터 유입된 하나의 외적인 장식 요소로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현대의 장식적 문신이 기존의 '낙인'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벗어나 하나의 패션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중간과정이 부재하며, 내재된 신체관과 더불어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을 지우기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문신의 유행과 잔존해있는 부정적인 인식과의 대립은 현재의 사회적 제도권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신체변형에 대한 통제가 있는데, 이는 현대에 와서 나타난 현상이다. 과거에는 국가적 통제의 필요성이 없을 만큼 개인들의 유교적 신체관이 확고했기에 자의로 신체를 변형하는 현상이 적었다. 반면 같은 유교권 문화를 공유하는 국가인 일본은 꾸준히 문신에 대한 국가적 통제가 있어왔는데, 이는 그만큼 문신이 성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유가적 사상의 영향력 및 개인의 유교적 가치관의 내면화 강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현대의 한국 사회도 법적 규제가 등장할 만큼 문신 인구는 늘고 있으며, 유교적 신체관이 강하게

남아있는 기성세대와 비교적 그 강도가 약한 신세대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국내에서 하나의 패션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한국의 특수한 문신문화와 개인들의 신체관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문신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에서의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배경을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비문신문화의 한국 사회에서 문신을 패션, 예술, 문화로 받아들이게 되는 단계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는 그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신문화와 개인들의 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문신의 의미 및 동기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한국의 문신문화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그 특수성과 배경을 밝히고, 이를 한국인의 특수하게 형성된 신체관과 연결시켰음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진행될 한국인의 신체변형 동기에 관한 실증 연구의 이론적 기초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Balamke, I. (2014, December 3). The tattooed priestess of Hathor. *ZERO=TWO*. Retrieved October 20, 2016, from <http://zeroequaltwo.net/the-tattooed-priestess-of-hathor>
- Bang, S. R. (2008). Study on the change of significance in female tattoos.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and Costume Design Association*, 10(2), 39-56.
- Bell, S. (1999). Tattooed: A participant observer's exploration of meaning. *Journal of American Culture*, 22(2), 53-58.
- Bianchi, R. S. (1988). Tattoo in ancient Egypt. In Rubin, A. (Ed.), *Marks of civilization* (pp. 21-28). Los Angeles: Museum of Cultural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 Caplan, J. (2000). *Written on the body: The tattoo in European and American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aplan, R., Komaromi, J., & Rhodes, M. (1996).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tattooing and bizarre sexual practice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3), 379-389.
- Cho, H. S. (2002). An essay on the origin and change of East-Asian tattoo. *The Korean Folklore*, 35(1), 151-173.
- Enforcement The Broadcast Act, Article 1 Section 33 (2016).
- Enforcement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 Section 27 (2015).
- Enforcement The Minor Offenses Act, Article 2 Section 3 (2017).
- EURAC Research. (n.d.). The mummy's tattoos. *ICEMAN photoscan*. Retrieved May 11, 2017, from <http://iceman.eurac.edu>
- Favazza, A. R. (1996). *Bodies under siege: Self-mutilation and body modification in culture and psychiatry*.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ilbert, S. (2004). *문신, 금지된 패션의 역사* [The tattoo history source book] (Lee, S. H., Trans.). Seoul: Renaissance.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Gittleson, N. L., Wallen, G. D. P., & Dawson-Butterworth, K. (1969). The tattooed psychiatric patient.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15(528), 1249-1253.
- Govenar, A. (1988). The variable context of Chicano tattooing. In Rubin, A. (Ed.), *Marks of civilization* (pp. 209-219). Los Angeles: Museum of Cultural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 Hamburger, E. (1966). Tattooing as a psychic defense mechanism.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12(1), 60-62.
- INUIT TATTOO GALLERY. (n.d.). *Indigenous Tattooing*. Retrieved March 25, 2017, from http://www.indigenoustattooing.com/inuit_tattoo_gallery
- Jeon, W. G. (1987). *한국화장문화사* [History of Korean makeup]. Paju: Youlhwadang.
- Jung, H. Y. (1999). *몸의 정치* [Body politics]. Seoul: Minumsa.
- Jung, J. Y. (2014, August 1). 블락비 지코, 팔뚝에 세종대 왕이? [Zico from Block B, having a tattoo of King Sejong?]. *Sports Today*. Retrieved September 19, 2017, from <http://stoo.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80113283847520>
- Kim, H. J. (2013). A comparative research into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attoo punishments and social, cultural and legal recognitions of tattoos in Japan and Korea. *Korean Police Studies*, 12(4), 87-118.
- Kim, J. Y. (2007). Study on body decoration of body modification. *Journal of Asia Pacific Design Forum*, 4(-), 29-39.
- Kim, Y. (2012). A study on Korean hip-hop fashion trends as popular culture: Focusing on cases since 200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2(1), 19-38.
- Kosut, M. (2006a). An ironic fad: The commodification and

- consumption of tattoos. *The Journal of Popular Culture*, 39(6), 1035-1048. doi:10.1111/j.1540-5931.2006.00333.x
- Kosut, M. (2006b). Mad artists and tattooed perverts: Deviant discourse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cultural categories. *Deviant Behavior*, 27(1), 73-95. doi:10.1080/016396290950677
- Krutak, L. (n.d.). In the realm of spirits: Traditional Dayak tattoo in Borneo. *Traditional Dayak Tattoo in Borneo*. Retrieved September 19, 2017, from http://www.vanishintattoo.com/borneo_tattoos_1.htm
- Lautman, V. (1994). *The new tattoo*. New York: Abbeville Press.
- Lee, D. C. (2005). 21 세기의 동양철학 [Oriental philosophy of the 21st century]. Seoul: Eulyoo Publishing Co., Ltd.
- Lee, D. C. (2007). Appearance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folk tattoos. *The Review of Korean Cultural Studies*, 22(-), 335-371.
- Lee, H. J. (2009). I-ching and discussion on happy family. *Jou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20(-), 129-154.
- Lee, H. W. (2003). Analysis & alternative of traditional concept of physique. *Philosophy of Movement*, 11(1), 61-94.
- Lee, S. M. (2005). Korean's cultural perspective and ethics of transplantation. *Journal of Moral and Ethics Education*, 8(-), 241-259.
- Lee, T. S. (2000). *체육학대사전* [The encyclopedia of physical athletics]. Seoul: Minjungseogwan.
- Loimer, Y., & Werner, E. (1992). Tattooing and high risk behavior among drug addicts. *Medicine and Law*, 11(-), 167-174.
- Lombroso, C. (1911). *Criminal man*. New York: Putnam.
- Michelle, A. (2014, January 15). Traditional tattoos by Allie Michelle. *OLIVE VINTAGE*. Retrieved October 25, 2016, from <https://olivevintage.net/2014/01/15/traditional-tattoos>
- Miller, J. C. (1996). But what does it mean? symbolism in tattoos. *Tattoo Review*, 8(50), 44-49.
- Moon, H. J. (2000). The usage and origin of tattoos.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4(4), 167-185.
- Namgung, H. S. (2015). *한국의 문신: 타투이스트가 전하는 타투 이야기* [Tattoo in Korea: The tattoo story from tattooists]. Seoul: Chuneobooks.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6).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History of costume and adornment]. Seoul: Doosan Donga.
- Newman, G. (1982). The implications of tattooing in prisoner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3(6), 231-234.
- Pae, T. K. (1990). *한국인의 문신* [The Korean tattoo]. Changwon: 배신경정신과의원.
- Parry, A. (1933). *Tattoo: Secrets of a strange art as practiced among the natives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Post, R. S. (1968). The relationship of tattoos to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59(4), 516-524.
- Propaganda Press. (2013). *문신유희: 지금, 한국의 타투 문화* [The tattoo game: The Korean tattoo culture today]. Seoul: Propaganda.
- Richie, D., & Buruma, I. (1989). *The Japanese tattoo*. New York: Weatherhill.
- Rubin, A. (1988). *Marks of civilization*. Los Angeles: Museum of Cultural History.
- Shim, S. B. (2017). A study on fashion design through comparison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costum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7(3), 83-103. doi:10.18652/2017.17.3.6
- Sinclair, A. T. (1909). Tattooing of the North American Indians. *American Anthropologist*, 11(3), 362-400.
- Southwell, D. (2008). *조폭연대기* [The history of organized crime] (Choo, M. R. Trans.). Seoul: Imago. (Original work published 2006)
- Spindler, K. (1994). The Iceman's last weeks. *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Section B: Beam Interactions with Materials and Atoms*, 92(1-4), 274-281.
- Steward, S. M. (1990). *Bad boys and tough tattoos: A social history of the tattoo with gangs, sailors and street corner punks 1950-1965*. New York: Haworth.
- Sweeney, S. T., & Hodder, I. (2009). *바다: 몸을 읽어내는 여덟 가지 시선* [The body: 8 ways to read your body] (Bae, Y. S., & Son, H. S., Trans.).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07)
- The Herald Business. (2016, April 4). [내 몸 내 맘대로 할 권리 ②] 문신하면 공무원, 특기병 지원도 못한다고? [[The right to control my body ②] Not even allowed to apply for civil servant or military specialist, with your tattoo?]. *NATE News*. Retrieved November 18, 2017, from <http://m.news.nate.com/view/20160404n10135>
- Zealand Tattoo. (n.d.). Maori Tattoo: The Definitive Guide to Ta Moko. *ZEALANDTATTOO*. Retrieved October 20, 2016, from <http://www.zealandtattoo.co.nz/tattoo-styles/maori-tattoo>
- ‘문신 인구 100만 명’ 헌법소원 왜 [‘One million population of tattooed Koreans’, what’s with constitutional appeal?]. (2017, September 16). *MBN news*. Retrieved November 18, 2017, from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340728
- 신체검사기준 [The criteria of physical examination]. (n.d.). *Republic of Korea Navy*. Retrieved November 18, 2017, from <http://www.navy.mil.kr/enlist/mboard/mboard.jsp?menu=6&smenu=1>

The Korean Body Philosophy and Tattoo Culture

Kim, Ga Hyun · Ha, Ji Soo⁺

Ph.D. candidate,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e modern Korean society, tattoo is considered as a form of fashion or self-expression among the young generation, although Korea hasn't had tattoo culture in the history. However, it is illegal to get a tattoo by non-medical personnel such as a tattooist, and the society tends to have prejudice toward tattooed people. This study found grounds for these social limitations from the body philosophy deep-rooted in society at large. The findings of the historical review on the Korean body philosophy and Korean culture of tattoo are as follows. First, in the Korean history, tattoo has been foreign culture all the time, and there is no indigenous tattoo culture. Thus, for Korean people with traditional body philosophy, sociocultural meaning of the practice is not sufficient, and only negative sense that tattoo is one of the acts mutilating the body remains. Second, tattoo has been considered as a secret that has to be covered or a mark that everyone wants to hide. So far, Korean tattoo has only had social meaning of 'stigma' and has never been understood as 'art'; therefore, accepting it as 'fashion' all of a sudden has been difficult for Korean people. Third, conflict between today's tattoo fashion and remaining negative sense can be interpreted as weakening of inherited traditional philosophy on body. In the past, because of individuals' firm traditional value, few people did body modification, so social control on tattooing didn't exist. However, population with tattoo has been increasing inasmuch that there are regulations nowadays. This phenomenon can be seen as a generation discord between the older generation with strong Confucian value on body and the new generation with rather fragile value. In such a society, it will take time to adopt tattoo as fashion, and the conflict can be interpreted as a transitional phenomenon.

Key words : body philosophy, body modification, tattoo culture, Korean traditional values

